

방이란 발상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를 부르주아계급과 대립시켜 전자의 편에 선 것은 예수의 입장과 상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차이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프롤레타리아를 계급으로 파악하여 그 계급성이 추상적 보편개념이 됨으로써 그같은 개념형성의 한 분자가 됐으면서 실은 그런 집단개념 아래 역사적 존재의 인권이 무시되고 비인간화된다는 점, 둘째는 위와 연결된 것으로서 프롤레타리아를 정치조직화하고 이른바 독재체제화하여 프롤레타리아계급에 속한 개개인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들의 이름을 도용한 소수의 통치자에게 바쳐버림으로써 철저한 피통치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다시 99마리의 횡포가 한 마리를 죽여 버리는 현실이 재현된 것이다. 이것은 바리사이즘의 현대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증오, 복수에서의 해방

해방이란 말은 벌써 싸워야 할 대상을 전제한다. 그 대상은 악한과 구조적 의지이다. 싸움은 증오를 동력으로 하며, 증오심은 복수심을 부채질하게 마련이다. 인류역사는 이러한 길을 걸어 왔으며 민족간의 전쟁이 당연시되었는데, 그것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것이 황금률처럼 뒷받침으로 가능했다. 이것을 이론과 실천으로 무장한 것이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는 해방운동이란 것도 바로 이러한 방법을 의식화하는 데서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럼 예수의 경우는 어떤가?

예수는 분명히 해방자이며 따라서, 해방을 위한 싸움을 하였음에 틀림없다. 한걸음 나아가서 어느 편에 선 것은 틀림없으나, 증오나

복수심을 그 동력으로 삼은 흔적은 전혀 없다. 그보다 오히려 그런 싸움이 결과적으로 악순환의 연속임을 의식하여 “옛사람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했으나 나는”이라 하며 원수를 갚지 말 뿐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했다(마태 5, 38~39). 사랑과 싸움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되나? 만일 예수의 행태에서 ‘투쟁’의 성격을 간과하면 니체의 말대로 그는 노예의 도덕을 설교한 것이 될 것이며, 이 철저한 사랑의 명령을 빼면 젤롯당과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두 상극 사이에서 행동의 좌표를 찾아낸 것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이다. 모름지기 예수의 기본 입장을 사변으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길을 찾은 경우는 간디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의 사랑의 명령이 포물선을 그은 것이 아님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기에 투쟁하는 그의 의지를 찾는 데 혼선이 생긴다. 예수운동의 전승을 양식사학과들처럼 분해해버리면 그 투쟁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예를 든 안식일논쟁의 경우만 해도 그것을 아포프테그마(Apophthegma, 상황언어)로 보고, 그 중심은 그 말씀 한마디에 있고, 그 상황은 그 말씀을 담은 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서 사실상 제거해버리면 가르치는 이는 드러나나 행동하는 자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편집사적 관찰이 훨씬 다이내믹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보아야 해방자의 면모가 드러난다. 그러나 다만 편집사적 방법은 사회사적 고찰을 보완할 때에 더욱 확실한 거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만 배고픈 자, 배고픔의 문제나 병자로서 소외된 자나 그 상대가 기존체제와의 관계에서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전승사적 관찰에서 왕왕 전승양식에 비중을 크게 둬므로 그 양식이 담은 내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형식에 대한 관찰이 문학적 심미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써 내용을 경시하는 경우를 왕왕

본다. 가령 예수의 해방의 대상으로 가난한 자, 맹인, 절름발이 그리고 포로된 자 등이 자주 비슷한 순서로 열거되는데(특히 루가 4, 18·7, 21~7, 22b·14, 13·14, 21b 등), 비록 유다 문헌에 유사한 용법이 있다고 해도 단순히 그것을 수사구처럼 전승했다고 간주해버리는 것은 경솔한 자세이다. 나열된 군상이 바로 그 사회의 비참함의 상징이요, 현실이었기 때문에 비록 인용문이라고 해도 현재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볼 때 저들을 구속하고 있는 대상이 뚜렷해진다. 저같은 군상은 라뻬 유다 사회에서는 하나같이 비인간화된 대상인 것이다. 그것은 비단 물질상태에서 뿐 아니라 그 사회의 가치기준이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해방운동은 저들을 그런 상태에 억류한 지배층과의 투쟁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 전승이 유다 민족의 지도층, 특히 바리사이파를 계속 적대자로 부각시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예수가 저들을 타도해야 할 원수로 치부해버리고 있지 않고(특히 루가복음에는 예수와 바리사이파의 교류가 여러 차례 보도된다), 또 언제나 민중을 해방함으로 비판을 받는 수세적 입장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Q자료(마태 23)로서 바리사이파를 공격한 데가 있으나 그 내용은 저들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것으로 바로 민중을 정죄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바리사이파를 향한 민중봉기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1차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수의 수난사이다. 예수가 성전을 숙청한 것은 켈롯당의 정신적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투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증오의 폭발이며, 민중의 승리를 노린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우리가 브랜던(S. G. F. Brandon) 등이 가설로 내세운,

한 집단을 이끌고 격투했다는 사실을 접고 볼 때, 그 많은 성전지기가 있는 현장에서 홀로 그런 행태를 취했다고 하면 그것은 힘(violence)으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겨누고 있는 적진 앞에 홀로 빈 주먹으로 맞서서 정의를 절규하는 사람과도 같다. 그것은 죽음으로써 이기리라는 전제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이다. 사실상 마르코 편자는 이 행위가 예수 죽음의 결정적 근원이라고 한다(11, 18). 성전숙청의 이유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드리는 집이라야 한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11, 17)고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어용자들의 부패의 핵심을 찌른 것이다. 저들은 사실상 성전을 절대화하고 신마져 독점하여 민중 수탈의 최대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은 ‘칼은 칼로’라는 순환이 불가능한 공격이다. 즉 그는 칼을 쓴 것이 아니라 정의로 맞섰으며, 적대자들은 그것에 대답할 말이 없으니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의 수수께끼의 한 면은 틀리는 셈이다. 그것은 의로운 투지가 불의의 칼에 죽음으로 악을 ‘단’(斷)함으로써 증오와 복수의 악순환을 종식하자는 결행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마태 26, 52)고 한 말씀과 관련하여 이해하면 억측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되리라.

수난사의 또 하나 특징은 예수를 죽일 음모는 사람들에게 의해 진행되는데, 게세마니의 기도나 십자가상의 절규 등이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고 하느님께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복수의 악순환을 영원히 ‘단’(斷)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인 것이다. 이것은 원수에 대한 증오나 보복을 극복함으로써, 불의를 영원히 매도함으로써 인간을 악순환의 역사에서 해방하려는 의지의 최후적 관철이라고 보고 싶다.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은 결국 해방투쟁의 도피가 아니

라 궁극적 해방의 길을 지평(地平)을 넘은 데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확신이다. 이것은 악한 세력을 방치해두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지닌 ‘힘’을 영원히 빼앗자는 것이다.

예수의 추종자들의 행태는 이러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따른 이가 그렇게 억울한 최후를 당하는데, 부활이라는 체험으로 죽음을 딛고 일어난 저들이 증오나 복수심에 사로잡힌 흔적은 전혀 없고, 역사에 새 장이 열린 것을 현실적으로 실감한 사람들 처럼 오직 앞을 향해 매진할 뿐이었다.

4. 결론(마리아 찬가)

위의 해방자의 모습이 루가의 특수자료인 마리아의 찬가에 잘 대변되어 있기에 그것으로 결론을 삼는다.

주께서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홀으셨다.
 제왕들의 권력을 낮추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고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자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도다(루가 1, 51~53).

이것은 해방자 출현의 찬가이다. 나아가 이것은 궁극적 해방은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이다. 그러므로 동시에 예수는 바로 하느님의 대행자로 행위한 셈이다.

■ 『기독교사상』 1989년 12월호에 수록.